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21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의 46번째 질주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3·1절의 정신을 계승하고 건강을 다지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을 소개한다.

튜브산업 끊임없는 기술혁신
“글로벌 기업으로 무한 질주”



제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 참여출진 하는 (주)한국번디 광주공장 직원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번디 광주공장 제공>

■ (주) 한국번디 광주공장

“마라톤 대회를 통해 기술 혁신으로 튜브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 한국번디의 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주주·사원 한마음 경영

제 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에 참여 출진하는 (주)한국번디 광주공장 직원 20여명이 “고객의 만족, 주주의 만족, 사원의 만족을 합친 ONEISM(열린한마음)이라는 공동체적 경영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뛰면서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주)한국번디는 냉장고 및 에어컨 등 백색가전제품의 콘덴서와 자동차 브레이크 및 연료관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광주공장은 지난 1993년 문을 열었다.

이후 독특한 기업문화인 ‘열린한마음 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끊임없는 원가절감 노력, 품질경쟁력 확보, 차별화된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해왔다.

한국번디 광주공장팀은 그동안의 발전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시장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하겠다는 각오다. 이들은 3·1마라톤 대회를 한해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무대로 삼았다.

직원들 한해 각오 다지기

광주공장팀을 이끌고 있는 임화규(58) 공장장은 “지난해부터 ‘웃음이 가득 아름다운 광주공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나·회사·가족이 하나라는 일체감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직원들에게 마

라톤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제는 직원들이 단순히 힘든 운동이라는 선입관을 탈피해 마라톤의 매력에 빠져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공장팀의 ‘젊은 피’ 업무지원팀 문정원(35) 대리는 “이번 마라톤 대회에 출진하기 위해 사내 헬스장과 집 근처의 공원에

서 틈틈이 체력훈련을 해왔다”며 “2011년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가족들에게 ‘아빠도 마라톤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여성의 몸으로 하프 코스에 출사표를 던진 품질경영팀 이흥이(여·28)씨의 각오도

남다르다.

하프코스에 도전장을 던진 이씨는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고등학교시절 체력장 테스트때 달린 게 가장 오랜 달린 경험인 것 같다”며 “지난해 태어난 아이를 생각하며 뛰면서 완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하인스 워드 터치다운 “아쉽다”
슈퍼볼 세번째 우승 도전 실패



미국프로풋볼(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하인스 워드가 7일 미국 텍사스주 카우보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린베이 패커스와 슈퍼볼에서 2쿼터 종료 직전 천공과 같은 터치다운을 성공 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베이 14년만에 정상

미국프로풋볼(NFL)에서 뛰는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5·피츠버그)가 세 번째 슈퍼볼 우승 반지를 끼는 데 실패했다. 워드의 소속팀인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카우보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45회 NFL 슈퍼볼에서 그린베이 패커스에 25-31로 분패했다. 2년 만에 슈퍼볼 정상에 도전했던 피츠버그의 꿈은 포스트시즌 돌풍을 일으킨 그린

베이의 파상공세 앞에서 수포가 됐다. 그린베이는 올 시즌 10승6패를 기록, 내셔널콘퍼런스(NFC) 와일드카드를 받아 가까스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포스트시즌에서 잇따라 강팀을 제압하고 슈퍼볼 무대에 올랐다. 슈퍼볼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은 1997년 이후 14년 만이다. 피츠버그의 와이드 리시버인 워드는 이날 패스를 7번 받아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78야드를 전진하며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 패배에 빛이 가렸다. /연합뉴스

KBO, 오늘 제 9구단 창단 우선협상자 확정

프로야구 제9구단 창설의 운명이 결린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8일 오전 9시부터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다. 유영구 KBO 총재와 8개 구단 사장들이 참석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엔씨소프트 등 창단 의사를 밝힌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9번째 구단을 운영할 우선협상자와 연고 도시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1일의 올해 첫 이사회에서 8개 구단 대표들은 제9구단 창설을 의결하면서 더 명확한 창단 심사기준을 KBO에 요구했다. 이에 KBO는 약 한 달에 걸쳐 마련한 세분화

한 심의 기준을 이번 이사회 때 각 구단 사장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KBO는 먼저 기업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성 등 법인의 재정능력을 계약화했다. KBO 관계자는 “야구단을 운영할 기업의 크기와 외형은 숫자에 불과하다. 야구단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구단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존 구단이 원했던 부분이 매출액, 부채, 당기 순이익 등 창단을 원하는 기업의 재정능력에 비해 이와 관련한 기준은 이미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표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이은별 3관왕... 한국 종합 2위

동계 U대회 폐막

한국이 쇼트트랙에서 무더기 금메달, 스노보드와 컬링의 선전을 앞세워 제25회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종합 2위로 마쳤다. 한국은 7일(한국시간) 터키 에르주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알파인스키 회전에서 메달을 추가하지 못했다. 한국은 이로써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해 금메달과 은메달 14개, 동메달 11개를 따낸 러시아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랐다. 우크라이나가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로 3위를 차지했고 슬로베니아가

금메달 5개와 동메달 3개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메달 15개 가운데 11개를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따냈다. 작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이은별(20)은 여자 1000m와 1500m, 3000m 계주를 석권해 3관왕에 올랐다. 동계 아시안게임과 일정이 겹쳐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으면서 전 종목을 통틀어 한국 신기록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남자 컬링과 스노보드 평행회전에서는 경북체육회 팀과 김상결(22)이 유니버시아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 한국 선수단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 /연합뉴스

동계AG 종합 3위 한국선수단 금의환향

2011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종합 3위 수성에 성공한 한국 선수단이 7일 금의환향했다. 김종욱(한국체대 총장) 선수단장이 이끄는 선수단 본단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다인 13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3위를 지켰다. 목표치였던 금메달 11개를 2개나 초과했고 은메달 12개, 동메달 13개를 보태 지난 대회 우승팀인 중국(금메달 11개)을 멀찍이 제쳤다. 2위를 기록했던 1999년 강원 대회의 성적(금1, 은10, 동14)을 뛰어넘어 동계아시안 게임 25년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따는 큰 성과를 올렸다. /연합뉴스

김종욱 단장 등 선수단 임원을 비롯해 스피드스케이팅 3관왕 이승훈(23·한국체대)과 크로스컨트리 사상 첫 금메달리스트 이채원(30·하이원) 등 30여명의 선수단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곧장 해산했다. 6일 알마티에서 해단식을 열고 대회 성과를 자축한 선수단은 공항에서는 따로 행사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박수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선수단 본진과 함께 입국한 스피드스케이팅 간판스타 이승훈(23·한국체대)은 “많이 기대해주셨는데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것입니다

부담없습니다! 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총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 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Free Wifi, 비즈니스 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따뜻하고 아늑한객실과 24시간 룸서비스와 여행에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평범한 바늘로 꼬매어 정성스레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는 저희의 자랑입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